

## 절주동아리 활동이 대학생의 음주에 대한 지식, 음주문화 인식도, 음주 문제에 미치는 효과

김승대<sup>1</sup>, 정명애<sup>2\*</sup>

<sup>1</sup>위덕대학교 보건학과, <sup>2</sup>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 The Effect on the Knowledge, Perception of Drinking Cultures, Drinking Problems of University Students by Cut Down Drinking Circle Activity

Seung-Dae Kim<sup>1</sup> and Myeong-Ae Jeong<sup>2\*</sup>

<sup>1</sup>Department of Health, Uiduk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Nursing, Dongguk, Gyungju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절주동아리 활동을 실시한 후 음주에 대한 지식, 음주문화에 대한 인식도, 음주 문제에 대하여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인 유사실험연구이다. 2011년 4월에서 11월까지 K시에 재학 중인 대학생 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실험군은 47명, 대조군은 48명으로 절주 동아리 활동 전에 음주에 대한 지식, 음주 문화 인식도, 음주 문제에 대하여 두 집단을 대상으로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고, 동아리 활동 후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7.0을 이용하여  $\chi^2$ -test, t-test를 실시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을 위해 일반적 특성, 사전 음주에 대한 지식, 음주문화 인식도, 음주 문제에 대하여 검사를 알아 본 결과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음주에 대한 지식에서는 실험군이 점수가 높았고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가설이 지지되었다. 그러나 음주문화 인식도, 음주문제에 대해서는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어 가설이 기각되었다. 향후에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절주동아리 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알코올과 관련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effect of the cut down drinking circle activity on knowledge, perception of drinking cultures and drinking problem to the university students. Study period was from April to November.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included 95 university students, located in the adjoining region of K city. While one of the group, composed of 47 students was designated as an experimental group, and the other group, composed of 48 students, was compared as a control group. Data analysis was done using  $\chi^2$ -test, t-test, they were processed SPSS 17.0. For homogeneous, general character, knowledge of drinking, perception of drinking cultures, drinking problem were measured pretest. The result were homogeneous group. The findings in this research were as follows. Knowledge of cut down drinking circle activity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On the other hand, the effect on perception of drinking cultures and drinking problem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hese findings in the study give us the necessity of the cut down drinking circle activity for university students. It is also meaningful for this program to apply university students to various programs of alcohol-related problems.

**Key Word** : Knowledge, Perception of drinking cultures, Drinking problem, University students, Cut down drinking circle activity.

\*Corresponding Author : Myeong-Ae Jeong

Tel: +82-10-9953-5095 email: goyo2000@hanmil.net

접수일 12년 08월 16일

수정일 (1차 12년 09월 03일, 2차 12년 09월 05일)

재제확정일 12년 09월 06일

## 1. 서 론

###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들은 청소년기에 억압되어 있던 환경에서 벗어나 대학에 진학하면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게 된다. 이때 다양한 대학문화를 접하게 되고 음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시기에 형성되는 음주는 평생 습관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음주문화는 대학생들이 친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경우 잘못된 음주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1].

우리나라의 성인 음주율은 2001년 50.6%에서 2005년 51.9%로 증가하였으며[2], 2008년 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음주율은 75.5%이며 고위험 음주율은 20.2%를 차지하였다[3,4]. 알코올은 우리나라에서 의존성이 가장 큰 약물로 생물학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으며, 20세 이상 음주와 관련된 질병으로 인한 조기사망 비용은 사회적 할인율 3% 적용시 2007년도에 약 3조400억 원 정도로 추정됐으며, 음주운전 사고 등 음주관련 사고로 인한 조기사망비용은 약 2480억 원인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결국 음주로 인한 질병과 사고로 발생하는 조기사망 비용은 3조2880억 원에 달한다[5].

남자 대학생의 음주 실태를 보면 1999년에는 86.2%, 2009년에는 85.1%로 10년 전에 비하여 남자 음주대학생의 비율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6].

또한 우리나라 대학생의 음주 양상을 살펴보면 한 자리에서 5잔 이상 마시는 것을 과음(binge drinking)이라 하였을 때 대학생 중 남학생은 81.4%, 여학생은 57.0%에서 폭음의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8].

직장인 음주실태 연구결과 따르면 직장인 대부분인 97.2%가 음주자이며 한 달에 평균 10일 정도 음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음주를 할 경우 폭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직장인의 음주자리가 거의 대부분 회식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회식의 경우 1차에서 2차, 3차로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원인이라고 하였다[9]. 그런데 이처럼 위험한 음주에 대한 시작점은 직장에 들어가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 들어가기 전 학문의 터전인 대학교에서부터 그런 음주를 지지하는 환경에 익숙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음주시작 시기에 있어서 1999년에는 고등학교인 경우가 가장 많아 60.4%였으나, 2009년에는 대학교인 경우가 54.4%로 가장 많았다[6] 특히나 대학생은 청소년으로부터 성인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고, 법적으로 음주 허용제한이 풀리는 시기이기도 하여 대학생들의 음주는 각종 사건, 사고를

가져오고 과음학생으로 인해 다른 학생들이 영향을 받는 상황 또한 심각하다[10]. 더군다나 대학생 음주문제에 대해 연구한 결과 중 대학생이 음주를 하는 이유가 친구들과 과 친교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11], 대학교 재학 중 일 때부터 사람과의 친목을 도모하는 활동에 술이 빠질 수가 없다고 하는 인식들이 대학생의 음주를 익숙하게 하는 상황으로 만들고 있고, 이러한 결과는 사회인이 된 후에도 술자리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기 어렵다는 그릇된 생각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올바르게 건강한 사회를 위해선 직장인이 되기 전의 대학생 대부분이 음주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최근 음주문제로 인한 대학생의 사망사건이 대중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과도한 음주에 대한 문제들을 일부 대학생들과 관련 주변인들이 인지하여 대학가에도 과도한 음주를 자제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다[12].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절주(Cut Down Drinking) 정신을 알리고 건전한 음주문화와 사회적 문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대학 절주동아리이다. 이 동아리는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과도한 음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음주 사회를 막기 위해 다양한 행사 및 활동을 통해 절주정신을 널리 알리는 대학생들의 모임이다[13]. 절주동아리 활동의 목적은 체계적이고 건전한 절주동아리 문화를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있다.

지금까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음주와 관련된 연구로는 음주 실태조사가 대부분이었고, 절주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효과를 본 연구[14,15]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절주동아리의 다양한 활동이 대학생들의 음주에 대한 지식, 음주 문화 인식도, 음주 문제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 향후 대학생을 위한 절주교육 프로그램 자료 개발 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이 연구를 시도하였다.

### 1.2 연구 가설

가설 1: 절주동아리 활동을 한 실험군은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음주에 대한 지식 정도가 높아질 것이다.

가설 2: 절주동아리 활동을 한 실험군은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음주 문화에 대한 인식정도가 낮아질 것이다.

가설 3: 절주동아리 활동을 한 실험군은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음주에 대한 문제행동정도가 낮아질 것이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절주동아리 활동이 대학생의 음주지식, 음주문화 인식도,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계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로 한 유사실험 연구이다[표 1].

[표 1] 연구설계모형  
[Table 1] Design of Study

	사전조사	처치	사후조사
실험군	Ye1	X	Ye2
대조군	Yc1		Yc2

###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북 K시에 위치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47명을 실험군으로, 48명을 대조군으로 하였다.

### 2.3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한 도구는 음주 지식과 음주문화 인식도에 관한 설문지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시한 도구를 송지영(2008)[16]이 사용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음주 지식 문제는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정답 1점, 오답 0점으로 13점이 만점이였다. 음주문화 인식도는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음주문화 인식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음주문제 설문지는 초기 문제 음주자에게 유용한 WHO에서 개발한 알코올장애확인검사(AUDIT)를 사용하였다.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최근 1년간 개인이 경험한 음주의 빈도와 양, 알코올의존 증중세, 음주와 관련된 문제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점수 범위에 따라 0~7점은 '정상', 8~15점은 '문제음주율', 16~19점은 '고위험군', 20점 이상은 '알코올 사용장애'로 분류한다[1].

### 2.4 연구진행절차

본 연구를 위한 조사 및 활동은 2011년 4월 26일부터 2011년 11월 25일까지 약 7개월간이었다. 사전조사는 2011년 4월 26일~28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실험군과 대조군의 음주에 대한 지식, 음주 문화 인식도, 음주문제 정도를 측정하였다. 동아리 활동으로는 4월, 10월 축제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캠페인활동으로 포스터 사진 전시, 음주와 관련된 영화 시청, 음주와 관련된 특

강, 금주에 관한 글 지어보기, 술 마시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알코올에 관한 상식 퀴즈대회, 술자리가 아닌 다른 문화 체험하는 보드게임 카페, 펀치 게임, 가상음주 체험하기, 알코올 습관 테스트하기 등을 실시하였다. 사후조사는 2011년 11월 22일 ~ 25일 까지 이루어 졌으며, 실험군과 대조군의 음주에 대한 지식, 음주 문화 인식도, 음주 문제 정도를 측정하였다.

### 2.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1) 실험군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나타내고 두 집단간 일반적 특성, 음주관련 특성, 음주에 관한 지식, 음주문화 인식도, 문제 행동에 대한 동질성 검정을 위해  $\chi^2$ -test 와 t-test를 실시하였다.
- 2) 가설검정을 위해 평균의 차이를 구했으며, t-test를 실시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동질성검정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별분포는 실험군은 '여자' 35명(74.5%), 대조군도 '여자' 29명(60.4%)로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았으며, 학년은 3학년이 실험군 24명(51.1%), 대조군이 26명(33.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4학년'이 실험군 17명(42.4%), 대조군이 17명(35.4%)였으며, 주거형태로는 자택이 실험군 24명(51.1%), 대조군이 25명(52.1%)로 가장 많았고, 종교는 '없음'이 실험군은 27명(57.49%), 대조군도 27명(56.3%)로 가장 많았고, '처음 음주를 해 본 시기'는 실험군은 '중학교때'가 18명(38.3%)로 가장 많았고, 대조군은 '고등학교때'가 19명(39.6%)으로 가장 많았다. '처음 술을 배운 사람'은 실험군, 대조군 모두 28명(59.5%), 28명(58.3%)로 '친구'가 가장 많았고, 현재 음주 유무에서는 '예'가 실험군은 40명(85.1%), 대조군은 35명(72.9%)로 대부분 학생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회 평균 음주량'은 실험군 '주 4~5회'가 34명(72.3%), 대조군이 28명(58.3%)로 가장 많았고, '1회 음주시 평균 음주량'은 소주 1-2잔(맥주 1병이하)이 실험군 15명(31.9%), 대조군 이 19명(39.6%)로 가장 많았고, 평소 즐겨 마시는 술로는 실험군은 '소주'가 22명(46.8%), 대조군은 '맥주'가 25명(52.1%)로 가장 많았으며, 술을 마시는 이유로는 실험군, 대조군 모두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동질성 검증

[Table 2] Homogeneity verification of Characteristics of subjects

일반 사항	구분	실험군(n=47) 빈도(%)	대조군(n=48) 빈도(%)	$\chi^2$	p
성별	남	12(25.5)	19(39.6)	2.90	0.089
	여	35(74.5)	29(60.4)		
학년	1학년	6(12.8)	1(2.1)	7.68	0.053
	2학년	0(0)	4(8.3)		
	3학년	24(51.1)	26(33.3)		
	4학년	17(36.2)	17(35.4)		
주거 형태	자택(통학)	24(51.1)	25(52.1)	1.06	0.785
	자취	9(19.1)	8(16.7)		
	하숙	0(0.0)	1(2.1)		
	기숙사	14(29.8)	14(29.2)		
종교	기독교	6(12.8)	6(12.5)	2.41	0.490
	천주교	2(4.3)	6(12.5)		
	불교	12(25.5)	9(18.8)		
	없음	27(57.4)	27(56.3)		
음주 경험 시기	초등학교	2(4.3)	1(2.1)	1.75	0.624
	중학교때	18(38.3)	13(27.1)		
	고등학교때	16(34.0)	19(39.6)		
	고등학교 졸업후	11(23.4)	15(31.3)		
처음 술을 배운 사람	부모님	10(21.3)	14(29.2)	2.85	0.583
	친구	28(59.5)	28(58.3)		
	선배	5(10.6)	4(8.3)		
	호기심에 혼자	2(4.3)	0(0.0)		
	기타	2(4.3)	1(2.1)		
현재 음주 유무	예	40(85.1)	35(72.9)	3.10	0.212
	아니오	7(14.9)	13(27.1)		
음주횟수	주 1~2회	10(21.3)	17(35.4)	4.17	0.244
	주 3회	2(4.3)	3(6.3)		
	주 4~5회	34(72.3)	28(58.3)		
1회 음주시 평균 음주량	소주 1-2잔(맥주 1병이하)	15(31.9)	19(39.6)	7.64	0.105
	2홉 소주 반병(맥주1-2병, 양주 3잔)	10(21.3)	18(37.5)		
	2홉소주 1병(맥주 4병, 양주 6잔)	13(27.7)	5(10.4)		
	2홉소주 2병(맥주 8병, 양주 12잔)	8(17.0)	4(8.3)		
	2홉 소주 3병(맥주 12병, 양주18잔)이상	1(2.1)	2(4.2)		
평소 즐겨 마시는 술 종류	맥주	19(40.4)	25(52.1)	2.98	0.560
	소주	22(46.8)	17(35.4)		
	양주	0(0.0)	1(2.1)		
	막걸리	1(2.1)	1(2.1)		
	기타	5(10.6)	3(6.3)		
술을 마시는 이유	스트레스 해소	11(23.4)	11(22.9)	0.46	0.926
	선·후배 친목	23(48.9)	24(50.0)		
	이유없음	6(12.8)	8(16.7)		
	기타	7(14.9)	5(10.4)		
대학생활에서 가장 많이 술을 마시는 시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12(25.5)	9(18.9)	1.89	0.595
	동아리 모임	2(4.3)	3(6.3)		
	학년 MT	25(53.2)	23(47.9)		
	학교 축제	8(17.0)	13(27.1)		
한달 평균 음주 지출 비용	1만원 미만	6(12.8)	8(16.7)	4.95	0.292
	1만원~3만원미만	18(38.3)	16(33.4)		
	3만원~5만원 미만	13(27.7)	9(18.8)		
	5만원~10만원 미만	8(17.0)	7(14.6)		
	10만원 이상	2(4.39)	8(16.7)		
대학생 음주문화에 대한 생각	좋음	6(12.8)	10(20.8)	2.25	0.522
	보통	39(82.9)	36(75.0)		
	나쁨	1(2.1)	2(4.2)		
	아주 나쁨	1(2.1)	0(0.0)		

23명(48.9%), 24명(50.0%)로 ‘선.후배 친목’이 가장 많았다. 대학생활에서 가장 많이 술을 마시는 시기로는 실험군, 대조군 모두 ‘학년 MT’가 25명(53.2%), 23명(47.9%)로 가장 많았고, 한달 평균 음주 지출 비용은 실험군, 대조군 모두 ‘1만원에서 3만원 미만’이 18명(38.3%), 16명(33.4%)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생 음주문화에 대한 생각으로는 실험군, 대조군 모두 ‘보통’이 39명(82.9%), 36명(75.0%)로 가장 많았다. 두 집단의 동질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chi^2$ -test를 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2].

### 3.2 두 군간의 사전 음주 지식, 음주문화 인식도, 문제 행동에 대한 동질성 검증

사전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 실천행위, 학업적 자기효능감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한 집단임을 알 수 있었다 [표 3].

### 3.3 가설 검증

1) 가설 1: 절주동아리 활동을 한 실험군은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음주에 대한 지식 정도

가 높아질 것이다.

‘가설 1’의 검증을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p < 0.047$ ),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실험군은 사전과 사후에는 1.80점 높아진데 비하여 대조군은 0.21점 변화하여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1.59점 더 높았다. 따라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음주에 대한 지식 점수가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 1’은 지지되었다[표 4].

2) 가설 2: 절주동아리 활동을 한 실험군은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음주에 대한 인식정도가 낮아질 것이다.

‘가설 2’의 검증을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음주에 대한 인식정도가 낮아 질 것이라는 ‘가설 2’는 기각되었다. 그러나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실험군은 사전과 사후에는 0.54점 낮아진데 비하여 대조군은 0.27점 변화하여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0.27점 더 낮았다 [표 5].

3) 가설 3: 절주동아리 활동을 한 실험군은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음주에 대한 문제행동정도가 낮아질 것이다.

[표 3] 두 군간 사전 음주 지식, 음주문화 인식도, 음주 문제에 대한 동질성 검증

[Table 3] Homogeneity verification of Drinking knowledge, Perception of drinking cultures, Drinking problem on Pretest of Two groups

변수	집단	실험군(n=47) 평균±표준편차	대조군(n=48) 평균±표준편차	t값	P
지식		7.66±2.67	8.33±2.54	-1.21	0.226
음주문화 인식도		18.67±3.26	18.47±4.03	0.25	0.798
문제행동		9.19±5.13	8.27±6.82	0.72	0.471

[표 4] 음주 지식의 평균 변화

[Table 4] Mean comparison of Drinking knowledge

집단	내용	사전 평균±표준편차	사후 평균±표준편차	차이 <sup>1)</sup>	t	p
실험군(n=47)		7.68±2.67	9.48 ±2.20	1.80	2.01	0.047
대조군(n=48)		8.33±2.54	8.56±2.27	0.21		

차이 <sup>1)</sup> : 사후-사전 평균차

[표 5] 음주 음주문화 인식도의 평균 변화

[Table 5] Mean comparison of Perception of Drinking cultures

집단	내용	사전 평균±표준편차	사후 평균±표준편차	차이 <sup>1)</sup>	t	p
실험군(n=47)		18.67±3.26	18.13 ±3.23	-0.54	-0.12	0.901
대조군(n=48)		18.47±4.03	18.20±2.81	-0.27		

차이 <sup>1)</sup> : 사후-사전 평균차

[표 6] 음주 문제 행동의 평균 변화  
[Table 6] Mean comparison of Drinking Problems

집단	사전 평균±표준편차	사후 평균±표준편차	차이 <sup>1)</sup>	t	p
실험군(n=47)	9.19±5.13	6.85±5.23	-2.34	-1.26	0.210
대조군(n=48)	8.27±6.82	8.27±5.72	0		

차이<sup>1)</sup> : 사후-사전 평균차

‘가설 3’의 검증을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음주에 대한 문제 행동 정도가 낮아질 것이라는 ‘가설 3’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실험군은 사전과 사후에는 2.34점 낮아진데 비하여 대조군은 거의 변화가 없어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2.34점 더 낮았다[표 6].

#### 4.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절주동아리 활동을 실시한 후 음주에 대한 지식, 음주문화에 대한 인식도, 음주 문제에 대하여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절주동아리 활동이 음주 지식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실험군은 사전과 사후에는 1.80점 높아진데 비하여 대조군은 0.21점 변화하여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1.59점 더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여 가설이 지지되었다. 이는 대학생 음주문제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효능성 평가를 한 김광기 등(2011)[14]의 연구에서도 음주에 대한 지식 점수가 100점 만점에 사전 21에서 사후에는 85점으로 높아졌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여고생을 대상으로 음주예방 프로그램을 적용 후 효과를 본 연구[17]에서도 음주예방 프로그램을 적용한 3개월 후에 지식변화를 알아 본 결과, 지식점수가 사전보다 6.7점 높아졌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는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였다. 따라서 절주동아리 활동이 대학생의 음주에 대한 지식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절주동아리 활동이 음주문화 인식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 본 결과, 평균점수에서 실험군은 사전과 사후에는 0.54점 낮아진데 비하여 대조군은 0.27점 낮아져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0.27점 더 낮았다. 그러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서 ‘절주동아리 활동 후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음주에 대한 인식정도가 낮아질 것’이라는 가설 2는 기각되었다. 지금까지 본 연구결과와 같이 절주 동아리 활동 후 음주문화 인식도에 대한 연구

를 시행한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이유는 대학생들은 지금까지 술 문화에 대해서는 비교적 허용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는 의학계열·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음주 문화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 본 김광환과 한진숙(2011)의 연구에서도 ‘술은 사람의 기운을 북돋워 준다’의 문항에서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다는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18]. 또한 원주지역 대학생들의 음주실태 및 음주문화에 대한 인식을 연구한 오혜숙(2011)에서도 ‘남자는 술을 마실 줄 알아야 함’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는 술이 필요’에 동의하는 편이었다고 하였다[19]. 따라서 향후 절주동아리를 운영한다면 음주 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하고 장기적인 구체적인 프로그램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음주 문제 행동에 대한 차이 변화에서는 평균점수를 비교 해 보면, 실험군은 사전과 사후에는 2.34점 낮아진데 비하여 대조군은 거의 변화가 없어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2.34점 더 낮았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음주에 대한 문제 행동 정도가 낮아질 것’이라는 가설 3은 기각되었다. 하지만 평균의 변화를 보았을 때 절주동아리 활동이 음주 문제 행동에 변화를 가져 온 것임에는 분명하다.

음주 문제 행동 측정에서 평균 점수를 비교해 보면 실험군은 사전 평균점수가 9.19점으로 이는 ADULT의 점수별 평가방법에 따르면 ‘문제음주자’에 해당되고, 이들에게는 ‘간단한 상담과 권고가 필요’ 한 단계였다. 그러나 절주동아리 활동 후에는 평균점수가 6.85점으로 낮아졌고, 이 점수는 ‘절주교육’을 받는 것에 해당된다. 이는 절주동아리 활동 중 축제기간을 비롯하여 정기적으로 K 시 보건소 절주운동 담당자와 지속적인 상담을 실시하였던 것이 효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비하여 대조군은 사전 평균점수가 8.27점에서 사후에도 8.27점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 점수는 ‘문제음주자’에 해당되는 점수이다. 따라서 앞으로 대조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절주교육의 적절한 시기에 대해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신입생 환영회'시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가장 많았다[13]. 그러므로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시기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신입생 환영회 전에 절주동아리를 조직하여 대학생 첫 시기부터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가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본 결과, 생활 스트레스의 여러 영역 중 이성친구, 교수 및 가족관계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 따라서 절주동아리 활동 프로그램에서 이성친구, 교수와 가족관계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끝으로, 본 연구 대상자들이 대부분 대학교 3,4학년이었다. 절주운동은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앞으로는 신입생을 중심으로 절주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사료된다. 성별로도 여자가 실험군 74.5%, 대조군 60.4%로 여학생이 많았다. 음주 문제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경우 문제음주자가 될 가능성이 약 2.4배정도 높았다는 연구[21]에서 알 수 있듯이 여학생 보다는 남학생에게서 문제가 더 발생하므로 남학생의 참여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절주동아리 활동의 대부분이 주로 봄, 가을 축제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계획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References

- [1] Choi. J, Kim. S. M, "A Study on Drinking Problems and Depression for Drinking Habits of th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3, No. 3, pp. 1138-1146, 2012.
- [2]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 CDC of Korean., "National Nutrition Survey Tertiary ", 2006.
- [3]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The Publication of Quarter 4 Year 2 Results, Seoul: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2009.
- [4] Son. A. L, " The Effects of Stress and Depression on Problem Drinking", Health and Social Science, Vol.28, pp. 61-79, 2010.
- [5] Jeong. Y. H, "The Effectiveness of Tax Policy on Alcohol", Health Welfare Forum, April, pp. 51-62, 2011.
- [6] Kim. J. G, Kim. J. S, "Alcohol Consumption and Drink-Related Behavior of Male University Students in Deagu: A Comparision of 1999 and 2009",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Vol. 19, No. 3, pp. 577-588, 2010.
- [7] Jeong. W. C, "The Actual condition and the impact of Psychosocial factors on problem drinking among the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58, No. 1, pp. 347-372, 2006.
- [8] Ryu. M, " Effects of sociocognitive factors on binge drinking of college students", The Graduate School of Ajou University, Mater's thesis, p.25, 2006.
- [9] Lee. S. Y, " Study on Factors Having Effect on Drinking Behavior of Office Workers", The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Seoul, Mater's thesis, p.41, 2006.
- [10] Weshsler. H. Lee, J. E. Gledhill-Hoyt, J and Nelson. T. F, "Alcohol use and problems at college banning alcohol : results of a national survey",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Vol.62, pp133-141, 2001.
- [11] In. S. H, "A Study on the Drinking Behaviour and the Prevention of Drinking Problems of College Students- A case study of University A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The Graduate School of Inha University, Master's thesis, p.52, 2010.
- [12] <http://news.donga.com/3/all/20110305/35323101/1>
- [13] Kim. S. D, " A Survey on the Drinking Culture of some University students in Kyeongbuk Probince",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Vol. 36, No.1, pp. 17-30, 2010.
- [14] Kim. K. K, Jung. J, Park. M. S, Lee. J. G, "Development and Efficacy Evaluation of Web-based Prevention Program of Alcohol-related Problem for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ol. 28, No.5, pp. 131-143, 2011.
- [15] Kim. H. Y, Kim. M, Lee. E. H, Kwon. E. J, Cho. H. I, " Intervention of "Drink Smart" Alcohol Education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Application of the Intervention Mapping and Transtheoretical Model",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ol. 28, No.5, pp. 145-160, 2011.
- [16] Song. J. Y, "Perception of and pattern of alcohol consumption and their effects on health-related behaviors among college students", The Graduate School of Sangji University, Mestar's thesis, p. 4-5, 2008.
- [17] Choi. S. H, Park. M. J, " Effect of Drinking Prevention Program on Drinking Related Knowledge, Attitude, Drinking Refusal Self- Efficacy and Behavior of

Vocational High School Girls", The Journal of Korean for School Health Education, Vol.11, No.1, 2010.

- [18] Kim. K. H, Han. J. S, "A study on the Awareness of medical and Health- Related Majors on Drinking Cultur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2, No.11, pp.5043-5048, 2011.
- [19] Oh. H. S, "Alcohol Consumption Rates and the Perception of Drinking Cultures Among College Students in the Wonju Area", The Korean Society of Food Culture, Vol. 26, No. 2, pp 101-112, 2011.
- [20] Suh. K. H, Kim. S. M. "Role of Life Stress and Ego-Resilience in Problem Drinking of College Students", J.of Korean Alcohol Science, Vol.10, No.2, pp. 21-34, 2009.
- [21] Yoon. M. S, Cho. H. J, Choi. S. Y, "Effects of Intention for Moderate Drinking and Drinking Environment on Problem Drinking among college Students", J. of Korean Alcohol Science, Vol. 10, No.2, pp.35-50, 2009.

**김 승 대(Seung-Dae Kim)**

[정회원]



- 1991년 8월 : 대구한의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보건학석사)
- 2007년 2월 :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박사)
- 1990년 4월 ~ 2007년 5월 :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의무기록실장
- 2008년 3월 ~ 현재 : 위덕대학교 보건학과 교수

<관심분야>

의무기록정보, 병원관리, 건강증진, 의무기록실무

**정 명 애(Myeong- Ae-Jeong)**

[정회원]



- 2000년 8월 :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간호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2004년 8월 :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박사)
- 2007년 9월 ~ 현재 : 선린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겸임조교수
- 2011년 9월 ~ 현재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간호학과 외래교수

<관심분야>

연구방법론, 건강증진, 응급간호, 학교 보건